

국회 예산정책처 지역의료 관련 보고서 분석

제주 치료가능사망률 2024년 전국 10위

순위 낮을수록 ‘양호’... 암 수술 자체충족률은 평균 하회

제주 지역 치료가능사망률이 17개 시도 가운데 10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가능사망률은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할 때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premature death) 비율로 하위권일수록 양호하다는 뜻이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지역의료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는 치료가능사망률이 2015년 47.7%(16위), 2016년 44.6%(17위), 2017년 40.8%(16위), 2018년 48.3%(11위), 2019년 46.2%(9위), 2020년 36.6%(16위), 2021년 41.1%(15위), 2022년 48.8%(6위), 2023년 45.7%(10위), 2024년 44.2%(10위)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최근 10년간 지역별 치료가능사망률은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대체적으로 서울이 가장 낮았으며, 충북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 의료 수준과 관련된 ‘지역별 자체충족률’의 경우 제주는 2024년 기준 80.9%로 나타나 전국 7위 권이었다. 자체충족률은 해당 지역 거주자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보건의료원 입원 재원

일수 중 해당 지역 내 동일 기관을 이용한 재원일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역의 주민이 해당 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의 이용률을 보여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의 경우 17개 광역시·도 중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자체충족률을 보였다. 이어 부산, 대전, 광주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이외에 제주 지역 지역별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 수는 2024년 기준 974개(병원급 28개·의원급 946개)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145.3개소로 서울(205개), 부산(169개), 대구(174개), 광주(163개), 대전(162개) 다음으로 많았다.

지역별 의료기관 개·폐업 실태의 경우 2021~2025년간 신규개업 의료기관이 많은 상위 3개 광역시·도는 서울·경기·부산이었고 하위 3개 지역은 세종·제주·울산이었다.

3대 급성기 중증응급환자(급성 심근경색, 급성 뇌졸중, 급성 중증 외상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은 제주가 2023년 8.1%로 전국 4위였다가, 2024년 7.7%로 전국 10위로 나타났다.

제주 지역 10대 암 수술의 자체충족률(신규 암 환자의 지역 내 수술 치료 비율)은 2024년 기준 48.2%를 기록, 전국 평균 63.6%보다 낮았고, 전국 12위권으로 나타났다. 서울=부미한기자 bu8385@ihalla.com

법화사 가치 재조명... 보존·활용 방향 모색

제주역사문화진흥원·법화사 오는 16일 학술세미나 개최
발굴·연구 성과 종합 검토

천년고찰 법화사에 대한 그동안의 축적된 발굴 자료와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학술세미나가 법화사에서 열린다.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원장 강경희)은 대한불교 조계종 법화사와 공동으로 오는 16일 오후 1시 서귀포시 하원동 소재 법화사 구하루에서 ‘법화사의 위상, 보존과 활용’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고려시대 대표 사찰인 법화사의 역사적 가치와 학술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재조명하고, 제주 문화유산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한편 향후 보존과 활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세미나는 주제 발표 3개와 종합토론으로 이뤄진다. 우선 김경주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원장이 ‘법화사의 발굴조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김종찬 제주대학교박물관 탐정이 토론을 맡는다.

이어 홍기표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이사가 ‘법화사 연구성과 검토와 위상 재조명’을 주제로 발표하며, 한금순 제주불교역사문화연구소 이사장이 토론자로 나

선다. 끝으로 이화중 한양대학교 박물관 연구교수가 ‘법화사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발표하고, 김태일 제주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고재원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센터장, 배상현 창원대학교 학술연구교수, 박찬식 전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장이 참여해 법화사의 역사적 가치와 향후 보존·활용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인다.

법화사(법화사지)는 고려시대 창건된 사찰로, 1971년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됐다. 이후 1982년부터 1998년까지 여러 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건물지와 다양한 유구 및 유물이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법화사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면서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

제주역사문화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학술세미나는 그동안 축적된 발굴 자료와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화사의 역사적 위상을 새롭게 조명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를 계기로 법화사가 제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유산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중문 서핑 삼매경 곳은 날씨를 보인 8일 제주 서귀포시 중문색달해변에서 서퍼들이 파도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복날맛이 고향사랑기부 돼지고기 경품 이벤트

제주도는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고향사랑기부 이벤트 ‘복날엔 제주에 기부하고, 고기 먹으면 돼지!’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행사 기간 중 10만원 이상 제주도에 고향사랑기부를 한 참여자 중 무작위로 100명을 추첨해 여름철 원기 회복을 돕는 ‘제주 돼지고기 세트’를 경품으로 준다. 당첨자는 8월 5일 ‘고향사랑e음’ 누리집 게시와 개별 문자 안내로 발표한다.

오소범기자

‘전국 최고 수준 보조금’ 수소전기차 민간 보급 인기

79대 모집에 174대 신청
도, 대당 3950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소전기차 민간보급사업 지원 희망자를 접수한 결과 모집 규모의 2배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지원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보급 물량 79대(일반 71대·우선순위 8대)를 2배 이상 초과한 174대(일반 160대·우선순위 14대)가 신청됐다.

제주도는 보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대당 3950만원(국비 2250만원·도비 1700만원)에 달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도는 이달 10일 전자 추첨을 통해 일반 71명과 취약계층·다자녀·

생애 최초 구매자 등 우선 순위 8명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자가 구매를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후순위 대상자 20명도 함께 선발한다.

이후 추첨에서 뽑힌 대상자가 차량 출고 일정을 확정하면 최종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다. 최종 대상자는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 및 등록돼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수소차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합덕 그린수소 충전소 외에 충전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김남진 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민간보급은 제주가 그린수소 기반의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전국 최고 수준의 보조금 혜택과 촘촘한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수소차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8만7862건에 대해 729억원을 부과, 오는 13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8일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제주시 소재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3%가 추가된다.

주택분 본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이를 초과

하면 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재산세는 가상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 ARS(142211)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조기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 중 150명을 추첨해 1인당 2만원 상당의 탐나는전정채수당을 제공한다.

백금탁기자



제주 최초 청각학박사학위 취득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청각학)



정확한 청력검사



전문 보청기 상담

보청기 상담은
청각학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

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야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래프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와이덱스보청기 강동우 청각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755.1005



상담예약 064)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 박사
산학협력
전문 청력
진단 재
활

